

## 중국인의 행태분석에 기초한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

Administrative Measure for Jeju Tourism Development based on  
Behavior Analysis on Chinese People

盧 滢 楠\*

Noh, Hyung-Nam

### ABSTRACT

*Recent tourism statistics shows that out of 2 million Chinese inbound tourists, 8.7% prefer Jeju to Hawaii or Maladive as a tourist destination. Based on a thick description on Chinese people's behavior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som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Jeju tourism development.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relies on institutionalism which focuses 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market economy in tourism development. Reviews of related literature on Chinese people's cultural characteristics yields four key words of Chinese people's behavior characteristics: social tie, true friendship, leisurely conversation, good foods with good peopl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se ethn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people, as a administrative measure for Jeju tourism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to enclose fortified confucianism with the concept of true friendship for counter-studying abroad. It also proposes to develop a cultural tourism space where Chinese people could appreciate slow life style and leisurely conversation with good food in the midst of world-wide well-known natural scenery and snow of Jeju.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o develop a luxury water-bar furnished with pure water produced in Jeju Island for medical tourism.*

핵심용어(Key words) : 중국인(Chinese people), 행태(Behavior),  
제주도(Jeju island),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  
행정조치(Administrative measure)

## I. 서 론

2011년 7월 중국의 건강식품회사인 인피니투스의 2천13명이 제주를 찾은 것에 이어 중국의 대형 직판회사로 건강용품, 피부미용, 일용품을 생산·판매하는 바오젠(寶健) 유한공사의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는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이 제주도에 1만1천여명 관광 습격사건이자 인해전술로서 동년 9월 13일 1차 1천3백63명 입국부터 시작됐다. 동월 28일까지 총 8차례에 나누어 3박 4일은 제주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서울 등지를 관광한다. 이에 제주시 연동의 ‘차 없는 거리’를 ‘바오젠 거리’로 칭명하고 주중 한국대사관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해전술 식 초대형 단체 관광객을 위해 비자 처리에 최대한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 내 16개 호텔 1만4천3백개 객실과 관광버스 2백8십여 대를 준비하고 성산일출봉, 주상절리대, 섭지코지 등을 관광하면서 4백1억원을 소비할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간접 효과까지 따지면 경제 효과는 물경 9백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제주를 관광한 중국인이 4십만6천1백64명인 것에 비해 2011년은 6십만 명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중앙일보, 2011년9월14일: 18사회).

우리나라 기업 3만여 개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국의 연간 교역액은 수교 당시보다 3십 배 성장한 2천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체를 중국이 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 중국인에 의한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에 즉각 영향을 끼친다. 매주 840편 항공기에 연간 6백만 명이 왕래하며 연간 150만 명이 우리나라 쇼핑 가도를 휘저으며 고가 부동산조차 중국인이 구입하고 있다. 중국인 학생 6만 명이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중국어 유치원이 성업 중이고 화교 유치원에 우리나라 어린이의 입학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과거 1980년대와 90년대 몰지각한 한국인이 추태를 부려도 적당히 눈감아 주었던 중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사이버 민족주의로 무장한 네티즌 4억 명이 주도하는 반한(反韓) 감정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내부 기제인 합리성 결여가 비합리성과 세계화의 충격으로 결합되어 과거 성장시대의 보호 장벽을 파괴하고 기업의 규모 확대로 소규모 기업에서 향유하였던 장점을 상실했으며 경영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인 비합리·비시장경제적 경영 관행의 폐해가 전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술한 중국인의 행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생활세계 현상에서 제도, 주체, 문화는 분리된 별개의 기제를 갖지 않고 상호작용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의 내적 기제를 파악한다. 그것은 이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해체하지 않은 시장경제, 국

가, 정치연합, 사회연결망, 동북아시아 관광에 관한 연구는 결국 환원주의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 의해 풍미했던 세계화의 어떤 점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환대산업의 위기를 조성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상호협력하며 미소를 띠던 중국이 2010년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2022년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전망하는 현시점에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로 취급하는 중국인의 우월의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sup>1)</sup> 공식인구만 13억 4천만 명에 광대무변한 영토를 지닌 중국이 시장개방 이후 매년 10% 경제성장하면서 간혹 보여주던 웃는 얼굴의 이면에는 국제사회 여론의 비판에도 전혀 패념치 않는 후안무치가 있는가 하면, 세계의 자본, 기술, 상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면서 급속하게 강력해진 국력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무시하는 위협적 얼굴을 근자에 공공연히 자주 보여주고 있다.<sup>2)</sup>

이 외에도 출구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인의 돈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엄청난 위력과 기세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급속하고도 깊숙이 유입되고 있다. 이는 중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경제를 교란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대단히 위험한 요인임을 입증한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나라가 이에 대처해 처리만 잘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을 위해 우리나라의 최첨단 정보기술 장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거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대학에 중국연구소를 설립하여 중국학이라든가 중국지역학 전문가를 대거 양성하여 중국 지도자의 안보행정과 정책전략에 관한 분석보고

1) 2010년 12월 23일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사실을 발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그 동안 좋은 말로 한국을 타일러 왔는데 한국이 제멋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 중국은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손바질 지렛대가 많아 그 중 하나만 사용해도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을 뒤흔들 수 있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은근한 중국인의 속내가 훤히 드러나는 중국의 책임 있는 언론의 무례한 공식 표현이다. 1393년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조선 태조 이성계에게 보낸 조공책봉(朝貢冊封) 체제에서 비롯된 차별적 한국관의 연장선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중국에 대한 축적된 연구와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현재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와 대북 공조 외교를 전개하되 중국이 패권 성향을 부활시켜 우리나라 이익에 위배되는 전략을 구사하면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원칙 외교를 당당하게 실시해야 한다.

2) 중국인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정치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경연장이며 더군다나 사생활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족정서를 환기시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닝보(寧波) 저우산(舟山)에 조성한 심청각을 소재로 한 짝퉁 심청전에서 보듯이 성행위의 후안무치가 성행한다(류사오보, 2011: 174-177).

서를 발간하고 내정과 중국정부의 국방백서를 상세하게 파헤쳐 군사경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전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에 중국연구센터를 2010년 말 설치하고 2011년부터 중국에 관한 이메일 정보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미성숙 단계다. 국내대학에 기존 중국연구소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문학에 편중되어 중국인의 정치경제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대기업의 중국 전문가에 의해 숨통이 좀 트여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관광업계는 전문분석기관이 아예 없으므로 차체에 관광개발 행정조치를 기획할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현대산업을 연구하는 기관을 시급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창한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도도 변창하는 방법은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관광허브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교전통을 공략하는 중국인의 관광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나라는 의연하게 눈에는 눈 전략으로 유교주의로써 전략을 재정비하여 중국인이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환기(喚起)를 목적으로 침투하는 관광전략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부충격 시 관광부문의 위기가 전체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에 과급될 악영향을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관행이 과생시키는 부수적 위기마저 발생시킬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1천만 외국인 관광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그 중 2백만 중국인 내방객의 8.7%가 하와이나 몰디브보다 제주도를 선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제도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내향적인 중국인의 행태분석에서 추출한 설명요인을 요인분석으로 정성적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그 처방적 대안으로서 지역화의 거대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현대산업 구조의 차이, 성장, 침체를 전망하는 이론으로는 사회구조보다는 국가가 우선인지 또는 시장경제가 우선인지를 따지는 제도분석이 필요하다. 정치·경제 엘리트의 연합을 강조하는 계급연합이든가 문화 분석에 치중한 단편적 논의도 요긴하다. 하지만 이는 성장과 침체 이유에 일관된 관점을 갖지 못하며 정치경제 체제의 내재적 한계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외환시장 불안과 경제구조의 기형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위험사회의 핵심요소조차 전망하지 못한다.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전주의 이론은 시장경제 논리의 합리적 행정을 통해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전개하며 풍부한 노동력에 합당한 노동집약적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국제경쟁력을 강조한다. 발전국가론은 성장이 자본주의 개발 국가의 전략적 개입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관광개발을 통치이념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인 환대산업을 선정하며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계급 연합론은 제도론이 시장경제와 국가의 부분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정치체제와 관광을 개발하는 엘리트의 정치연합세력이 성장과 행정결정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유교자본주의론은 경제성장이 효율적 행정의 결과라는 기본 가정은 개발 국가론과 같지만 행정이 정부와 관료의 일방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 등 비공식 연계망, 심의회, 자문위원회, 중간조직(업계단체) 등 공식 연계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상기 이론은 각기 고유한 장점을 갖는다.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경제예측, 발전국가론은 경제발전 속도와 양상, 계급 연합론은 경제구조와 정치행위의 상관관계, 유교자본주의론은 국가별 경제 발전과 제도의 특성을 전망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성장모형, 성장전략, 거시·미시경제 행정, 정치연합 세력구성 등 체계의 외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치경제 체계의 내적 합리성을 규명하지 못한다.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은 행정이 성장의 견인차였던 국가가 성장의 방해물인 것으로, 계급연합을 강조하는 이론은 경제를 이끌었던 정치연합 세력이 자기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으로, 문화 측면을 강조하는 유교자본주의론은 발전을 선도한 문화가 트로이 목마였던 것으로 귀결되는 논리적 모순을 띤다.

세계화는 사고, 생활, 생산, 노동에서 서구의 근대화를 극단적으로 추종하며 근대화는 합리적인 산업화의 핵심가치로 구성된다. 최근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이 환대산업을 국가자원을 집중하였지만 환대산업을 서구의 근대화와 맥락을 달리하였다. 서구의 근대화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합리성을 제고하였지만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개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한 채 국가주도형 관광입국(觀光立國) 행정 하에 환대산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세계화 충격에서 타격을 받았다.

세계화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개국에게 정치적으로는 합리화의 추동력으로, 경제적으로는 환대산업구조의 재편과 경제운용 합리화의 압력으로, 사회문화적으로는 합리화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 전근대성으로부터의 탈피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보존을 위한 저항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경

제주체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관행이라는 내재적 한계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한다.

세계화는 바로 이 점에서 국가위기를 초래하였다. 정당은 파벌체제에 의해 움직이며 한 때 성장을 주도하였던 관료주의는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축으로 되었다. 경제체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과잉으로 전근대적이지 비합리적 운영방식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에 비합리성이 내적 기제로 작동하며 비합리적 경쟁을 조장하거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거래비용의 증대와 체계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화가 관광개발에 외부충격을 가하지만 이는 단지 내재된 위기를 촉발시킨 충격일 뿐이지 동북아시아 지역은 이전부터 비합리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의 체제에서 비합리성, 획일성, 일사분란성이 비인간적 가치 강요와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양적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 민주화와 세계화는 비합리적 단점을 극대화하였고 새로운 도전에 노력을 경주하게 만들었다. 특히 경제구조와 정치경제 의사결정의 합리성 차이가 위기 관점과 대응 방법의 차이를 조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축소시켰고 더 이상 과거처럼 국가와 기업 사이의 수직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민주화는 정치경제의 합리성을 추동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시민사회에서 체계에 합리성을 요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정치적 비합리성의 전형적 사례인 파벌주의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권마저 박탈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조나 유행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중국인은 국가의 핵심기장인 제도마저 외국에 아웃소싱 함으로써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 넣어 중국을 위기에서 구하기는 했지만 경제의 역동성 때문에 중국사회가 결코 충족시키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하였다. 오염, 부정부패, 노동불안, 질병, 소비재 안전, 범죄 등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관리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써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도 역시 유행과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인이 정치마저 아웃소싱을 감행한 결과다(에드워드 스타인펠드, 2011: 71-77).

### III.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변인의 기저에 깔린 공통요인을 모색하는 요인분석방법을 실시한다. 이는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 변인 사이의 공통요인을 발견한다. 이

는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요인을 찾는 것이기에 변인 사이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구별이 필요 없다. 단지 이 연구에서는 변인의 수를 여러 개로 하되 등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하고 요인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량적 연구가 아니라 상기 연구방법론을 원용한 정성적 요인분석을 시행한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대상인 중국인, 울타리, 유교주의, 한담, 생수, 순수한 최고급 물과 청정한 자연 환경으로 치유하는 의료관광에 대해 중국인 관광객이 가지는 다양한 관념, 행태, 가치관을 유사한 항목으로 묶어 공통요인으로 축약하는 방법을 탐사적 요인분석을 하되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연구자가 논거로 삼는 이론적 배경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면서 요인분석방법을 철학 및 해석학 논지에서 정성적으로 실시한다.

## 1.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 탐사적 요인분석을 하되 연구자가 논거로 삼는 이론적 배경에서 요인분석방법을 정성적으로 실시할 논거로 삼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의미의 벗이라는 울타리 개념으로 유교주의를 강화하여 역유학을 장려하고 느긋한 슬로우 라이프 일정으로 제주도의 경관과 설경을 즐기면서 유유자적 한담을 나눌 문화공간을 마련하며 호화스러운 워터 바를 제주도산 생수로 구비하여 순수한 최고급 물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치유하는 의료관광을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로 제도화하고 거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연구가설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구별이 없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공통된 설명요인에서 비롯된다는 대전제 하에 이를 결정하는 최소주의 원칙과 회전의 문제를 전제로 한다. 설명요인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유 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만을 주요성분 분석을 위한 공통 설명요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정량적 연구의 측정치로써 큰 윤곽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명요인의 세부사항까지 철학적 고찰을 하여야 하므로 상술한 방법론은 원용하되 철학 및 해석학 논지에서 정성적 분석을 하는 점이 상이하다.

## 2. 정성적 분석방법: 설명요인 추출

이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명요인으로서 중국인의 진정한 의미의 벗, 울타리, 유교주의, 한담, 생수, 순수한 최고급 물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치유하는 의료관광을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의 제도화와 거대전략 수립에 필

요한 설명요인으로 추출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민족정서 환기 전략이 제주도 관광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제도론의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하되 체계의 합리성과 민족정서 개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전망한다. 체계의 기제가 민족정서에 공동으로 상조하여 민족지학을 형성하면 체계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권력, 화폐경제력, 사회통합 기제와 밀접하게 되는데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제도론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 구성을 시도한다.

현대산업은 정부주도형 대기업화, 민간주도형 대기업화, 민간주도형 중소기업화를 지나왔으며 한 때 서구자본주의를 대체할 모형으로 간주될 만큼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은 남부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보듯이 경제위기에 처하여 기사화생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이 연구는 민족정서 환기전략에 의해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가 도리어 관광개발에 주효한 요인임을 주장하여 민족정서라는 거시문화의 틀에서 사회구조와 경제운용방식을 제안한다. 문화의 차이를 민족정서와 민족지학에서 찾는 점도 기존의 논의와는 상이하다.

민족정서를 다룰 때 흔히 유관한 것으로 거론되는 국수주의적 자민족주의는 유교문화권만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성향으로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핵심개념인 민족정서 환기전략이 국수주의적 자민족주의의 표출이 아니라 이로써 포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북아시아의 권역별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민족지학 지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대화, 합리화, 현대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침체에 관한 기존 이론이 제주도 관광개발의 외적 구성요소분석에만 치중하여 내적 기제인 합리성이나 민족정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비판하고 관광개발을 민족정서의 구조를 통해 분석한 후, 합리성과 민족정서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주도 관광개발의 거대전략으로 제안한다.

## IV. 정성적 설명요인분석의 결과

### 1. 설명요인분석: 중국인의 행태

#### 1) 울타리

중국인의 행태를 두텁게 묘사(thick description)하자면 국민이라는 개념은 애당초 없고 신민(臣民)이나 자민(子民)만 존재한다. 복잡 적응계에 입각하면 개

개인 프랙탈(fractal)은 부재하고 국가 홀론(holon)도 없으며 오로지 수많은 울타리(동업조직, 향우회, 가족, 가정) 클러스터만 산재한다. 태평성대 호시절이면 울타리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응집해 동심원(同心圓)을 형성하고 난세가 되면 울타리는 자기상사성(self-similarity)을 발휘해 체계를 이루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하면서 균용이 할거하거나 화해하든지(이중텐, 2009),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혼란의 와중에 서로 한 몫 잡으려고 무척 설친다. 영웅호걸이 파국을 수습할 때도 고향 땅의 울타리가 지닌 힘을 동원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복잡 적응계에서 정족수를 확인(quorum sensing)하면서 동심원을 다시 구성한다(진기환, 2010: 324-332).<sup>3)</sup>

호구제 때문에 고향을 쉽게 떠나지 못하기에 국가보다는 팔색조 같은 도시에 맹세한다(이중텐, 2010). 위풍당당한 황제의 기상이 있는 베이징 사람은 자칭 정치인(양동평, 2008: 281-348), 점잔을 피우는 상인의 총명함이 깃든 상하이 사람은 인간 계산기(양동평, 2008: 281-348), 호의호식하는 트렌드 세터의 감각이 있는 광저우 사람은 대식가, 아름다운 소녀의 수줍음을 지닌 샤먼 사람은 게으름뱅이, 세상 근심 없이 뛰어 노는 어린아이의 행복감이 마냥 느껴지는 청두 사람은 수다쟁이, 의리(진기환, 2010: 324-332) 있는 동네 형님의 듬직함이 풍기는 우한 사람은 욕쟁이, 이제 막 태어난 듯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배어 있는 선전 사람은 아무런 특색이 없다고 서로 홍보고 폄하하면서 놀려댄다.

중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하나가 아니라 국가명칭 ‘차이나’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다. 이는 인터넷 영상자료에 남루한 포대기에 싸인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쪼그리고 앉아 구두닦이를 하는 여인에게 자기 아들의 구두를 손질하게 시키는 성장한 부인의 사진 아래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이미지다. 중국에는 거대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 2) 진정한 벗

중국인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결속력이 없다는 말보다는 뿔뿔이 흩어진 울타리

3) 중국 촌락의 지배 구조에서 특징 요소는 종족이다. 다민족 국가로서 하나의 촌락 안에 두 개 이상의 씨족과 종족이 병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종족은 공통의 조상과 혈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간에 동질감을 강화시킨다. 공통된 행태 규범과 행동 규율을 만들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유된 정체성을 확대 재생산 한다. 문화대혁명 이후 전통적인 종족 중심의 사회 구성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하였지만 오늘날 중국 촌락에서도 전통적인 종족 관념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으며 촌락 공동체 이념은 여전히 사상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김광익, 1998: 137).

(이중텐, 2009)가 산점도(散點圖)를 이룬다는 두터운 묘사가 적절하다. 이는 천지 사방으로 분포되어 산재해 있다. 무려 보름 동안이나 즐기는 춘절(春節)에 기상이 변으로 행여 교통이 두절되더라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약속한 선물 등짐 짊을 바리바리 왕창 짊어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눈길을 헤치며 걸어가서라도 반드시 만나 그 선물 꾸러미를 몸소 건네주면서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혈연, 지연, 인정, 안면, 체면(버트런드 러셀, 2009: 250-253)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우정을 중요시 하는 인생철학은 개인의 힘은 미약하고 국가는 의지할 도리가 없기에 자기조직화한 전통이다. 당연한 수순으로 폭넓은 친구관계를 선호하다 보니 이에 대한 고사성어가 많으며 진정한 벗을 찾는 일화도 수도룩하고 설령 친구 때문에 손해를 좀 많이 보더라도 불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지사다(진기환, 2010: 324-332).<sup>4)</sup> 수많은 울타리를 만들어 복잡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의 일원이자 구성원인 프랙탈끼리 유클리드 기하학적 최단이격거리의 소통경로에 의존하는 노드(node)를 설정한다. 친구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일단 확실하게 맺어진 친교는 대단히 돈독한 우애를 평생 대를 이어 자랑한다.

루쉰(魯迅)에 의하면(且介亭雜文二集) 친구지간에 여차하면 빌붙어 살겠다는 의지가 서로 준비되어 있고 이를 개의치 않으며, 재주를 갖고 있어야 식객으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이중텐, 2009). 언변이 탁월하여 대소사를 척척 알아서 처리하며 자유자재로 글을 쓰고 재미와 해학이 출중하여 흡인력 있는 음유(吟遊)시인이자 구두문학가이어야 중국인 공동체에서 살아남는다. 견문과 학식이 풍부하고 동서고금을 통달하여 어떤 화제라도 이어갈 수 있으며 질문에 명쾌하게 쾌도난마격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속에 든 것이 많고 내공이 깊어야 하는데 거의 학자 수준이 되어야 한다. 금기(禁忌)의 도를 터득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변을 즐겁게 하고 반감이 들지 않도록 정치가다운 기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말로 대의를 논하며 위기를 탈출하는 현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려면 기지가 뛰어나고 총명해야 한다. 진정한 벗인 평영우(朋友)가 되려면 주유천하하고 박학다식해야 한다(린위탕, 1999: 226-241). 이는 커짜(客家)족

4) 미국을 국민 자격으로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협력을 위한 5가지 주장을 8자씩 총 40자로 극소수의 시니피앙으로 축약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호혜공영의 경제협조를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는 취지의 着眼大局 立足長遠(장기적 안목으로 큰 그림을 보라) 抓住機遇 開拓創新(기회를 틀어쥐고 혁신을 펼치자) 加強溝通 密切磋商(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절충하자) 加深友誼 面向未來([친구지간의] 친근함을 심화하고 미래를 향하자) 相互尊重 平等相待(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자)는 그야말로 미니멀리즘의 극치이자 백미(白眉)다.

의 경제공동체가 지닌 전설적인 막강한 결속력으로서 싱가포르의 리관유 전 총리와 호랑이연고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대변한다.

### 3) 한담(閑談)

중국인은 강직한 듯 원만하고, 솔직한 듯 속물스러우며, 의심이 많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남의 말을 쉽사리 믿는 편이다. 고지식하면서도 융통성이 있고,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정의감에 불타오르며, 용감하게 싸우지만 쓸데없는 일에는 절대 참견하면 안 된다는 금기 때문에 의외로 수수방관하기도 한다. 예의를 따지면서도 공중도덕심은 소홀하여 주위의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사태가 속출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후안무치(厚顏無恥) 행태를 보인다. 중용을 주장하면서도 극단적 면이 있고, 근검절약을 강조하면서도 호사스러운 걸치레를 좋아한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유행에 민감하여 유명 브랜드라면 사족을 못 쓴다.<sup>5)</sup>

거대한 빌딩으로 이루어진 짝퍽백화점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외국인관광객을 호객한다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안분지족하면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향을 태우고 점을 보면서도 종교를 믿지 않고, 뭉치기를 좋아하면서도 집안싸움은 그칠 날이 없다.<sup>6)</sup> 타인의 흠결사항을 들추기 좋아하면서도 원만하게 수습하고(버트런드 러셀, 2009: 250-253)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일견 거들면서 한담하기를 좋아한다(린위탕, 1999: 169-182).

갈등이 증폭되면 타협을 선택하고 여론을 따르는 습성이 있다(버트런드 러셀, 2009: 250-253). 시간을 중시하면서도 [만마얼디](慢慢的)를 외친다. 대화중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청자의 관점이 화자와 일치한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다. 오히려 정반대일 개연성이 더 크다. 수긍(首肯)이 반드시 긍정의 의미가 아

5) 부자임을 과시하기 위해 황금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황금연회’가 있고 장수를 기원하면서 오륙 개월 된 영아로 만든 ‘영아탕’을 메뉴로 하는 엽기적인 식당이 있는가 하면 ‘나체 초밥’ 같은 음란한 음식문화가 인기를 끈다. 그리고 ‘얼나이 짬뽕’이 성황리에 판매될 정도로 자극적인 음식 명칭이 풍미한다. ‘얼나이’는 첩을 뜻하는 신조어로서 돈 많은 기혼 남자와 동거하거나 성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풍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을 지칭한다(류샤오보, 2011: 147-179; 201-202). 마오쩌둥의 통치 철학이 풍미하던 시절, 중국에 레이저니즘과 대치어즘을 합성한 레이저노믹스에 의한 행정 혁명을 가장 열렬히 지지한 나라는 사회주의 중국이다(에드워드 스타인펠드, 2011: 20-23).

6)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가 말하는 중국의 모습에서 일말의 양심만은 지키던 문화가 바진(巴金)은 적지 않은 장편소설을 발표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소설은 『가(家)』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책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감안한 것임을 밝힌 것(류샤오보, 2011: 201-202)만 보더라도 얼마나 중국인이 집단지성 속에 존재하는 의외의 자기 자신만의 내부 공간을 생존 공간으로 간주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이는 단지 경청한다는 표시이거나 예의상 그저 하는, 심지어는 습관일 뿐이다. 단지 이 사람은 이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저 입장에서 동조하는 것뿐이다(이중텐, 2009).

#### 4) 집단식사

중국인에게 식사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자 의식이다. 북방인이 허세를 부리듯 한상 그득히 차려내는 음식문화와, 남방인이 다채롭고 오밀조밀하게 차려내는 요리상의 쩌쩌한 음식문화는 판이하다(양동평, 2008: 281-348). 어쩌다 환대산업 종사자가 실수라도 하면 단박에 [니쯔르스칸마](뭐 하는 거야!) [니한니더상쓰라이](가서 너의 상사를 불러와!)라며 호통을 친다. 본시 뒷사람 말은 잘 듣는 편인지라 유사시 뒷사람부터 찾고 본다. 이는 민족성에 기인하며 민족지학을 형성한다. 초대받았을 때 무언가 마시기를 권하면 [메이판시](괜찮다)고 말해 놓고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느라 끝까지 단식하며 [여우이따메이이따](아무거나)라고 답한 결과 난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중텐, 2009). 이는 중국문화의 사상적 행태다. 문화는 아무 이유 없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의 민족지학을 이 연구에서 설명요인으로 다루는 소치다.

이 연구는 민족지학 관점에서 중국 문화를 구현하는 중국인의 사상적 행태인 집단지성과 의식구조를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하여 해체 분석한다. 중국인은 머리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상대방을 높이면서 경의를 포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인지상정과 체면을 지켜 양보하는 집단개념을 선호한다(버트런드 러셀, 2009: 250-253). 집단지성에 뜻밖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만의 내부공간을 생존공간으로 간주하는 중국인 개개인의 인격은 집단의 공동인격의 발현이다. 함께 어울려 식사할 때 전체 상황을 숙지하고 고려하며 가능한 한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한다.

## 2. 중국인의 민족정서 환기전략

### 1) 민족정서 환기

중국인의 행태에 의해 야기되는 민족정서 환기전략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 한국인에게 한(恨)을 주제로 하는 설화가 많듯이 중국인에게도 우리나라와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유사한 심청전이 있다. 가엾은 노부(老父)의 눈을 뜨게 하 게 위해 나이 어린 딸이 공양미 값으로 뱃사람에게 팔리는데 중국인은 저희네 상전인 심국공(沈國公)에게 갖다 바친다.<sup>7)</sup> 이름을 상전 따라 심청이라 하고 닝보

(寧波) 저우산(舟山) 곁에 주변의 우려를 받고 살았다는 심청전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 1만5천 평 규모의 심청원을 복원했다. Ningbo 시내에 고려사관 기념탑이 있고 북송 이래 고려인의 숙박 터가 재현되어 있다. 고려시대 일반인의 교역은 Ningbo가 중심이었으며 고려 상인 숙박소에서는 고려자기가 출토된 적도 있다. 황해나 동남지나해에서 난파되어 표류하면서 조류를 따라 흘러가다보면 자연스럽게 Ningbo 항구에 도착하게 마련이어서 Ningbo는 개성의 벽란도와 함께 한·중 교류의 메카다.

역사의 예를 추가하면 성종 때 최부(崔溥)가 경차관으로 임지에 가는데 선박이 난파되어 하는 수 없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게 되었다. 간간하기로 이름 난 선비 최부는 동남아시아의 만국 배들이 모여드는 해적의 소굴이기도 한 지나 해상에서 해적에게 잡혀 갓을 벗기게 되었다. 그 당시 선비에게 갓은 고매한 인격과 높은 벼슬의 상징인지라 절대로 갓만은 못 벗겠다고 저항한 선비 정신의 꾀꿍함과 매서움을 기록한 사적비도 Ningbo에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남원부사로 부임한 유몽인(柳夢寅)이 남원에서 전해들은 전쟁 후일담을 기록한 것으로서 홍도전이 있다. 이에 의하면 남원에서 사랑을 약속한 홍도는 남장여인으로 종군했다가 포로가 되어 Ningbo 저우산을 거닐다가 남원의 연인만이 불 줄 아는 피리소리를 듣고 심야에 찾아가 극적으로 해후한다. 남원을 지배했던 양원(楊元) 사령관을 따라 중국에 가 뱃사람으로 살다가 드라마틱하게 맞은 기구한 만남이다(조선일보, 2006년 1월 7일: 이규태 칼럼).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국인과 밀접한 저우산 그리고 임진왜란 때의 로맨스를 중국이 민족정서 환기용 승부카드로 들고 나온다. Ningbo와 저우산 항구가 합쳐져 황해에서 상하이에 버금가고 세계에서 세 번째 물류이동을 담당하는 거대한 항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는 곳에서 한국인의 민족정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물류기지로 부각될 Ningbo-저우산 시너지항구개발을 빌미삼아 민족정서 환기용 카드로 한국인을 호객하는 중국인의 저의가 가공스럽다. 다크호스의 등장으로 한국의 물류는 극빈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다. 우리나라가 민족정서를 비합리성과 배타성에 애용하던 동안 중국인은 우리나라 환대산업 성장에 위협적인 민족정서 환기용 카드를 역으로 마치 도전장처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동향은 바야흐로 ‘세계7대경관’ 선정 최종후보지에 제주도가 14위로 거론되면서 우리나라의 관광과 국격(國格)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원대한

7) 중국인의 사생활에서 성생활의 후안무치가 통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류사오보, 2011: 174-177).

꿈을 이루려고 응비하는 제주도의 관광개발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 2) 물류허브

일본, 대만, 홍콩, 미국의 투자가 상하이로 집중된다. 대만 기업인은 상하이 부근의 장쑤(江蘇), 저장(浙江)지역에 투자한다. 미국의 포천 지가 선정한 세계5백대 글로벌기업 중 절반이상이 룡터우(龍頭: 용머리)라는 별명의 상하이에 진출해 있다. 상하이 시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 전체평균의 4배를 넘는다. 대외교역의 20% 이상이 상하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하이 동남쪽 30km 바다 한가운데 양산(洋山) 선수이(深水)항 1단계공사가 끝났다. 동북아시아의 물류허브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작이다. 2020년 완공되면 현재 우리나라 부산항의 3배 이상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최대항구가 된다. 우리나라도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신항(新港)공사를 하지만 양산항과 경쟁을 벌이기에는 미흡하다. 양산항은 50선석(船席)이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30선석 규모다. 수심이 15m 이상인 양산 선수이항이 개항되면 상하이는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상하이 린장(臨江)개발구에서 양산 선수이항으로 이어지는 동하이 다차오(東海大橋)는 비상하는 용의 형상이다. 급성장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환대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을 차지하려면 제주도 해안도시의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 조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가 큰 문제거리다.

## 3. 연구가설 검증

### 1) 홍색여행: 반(反)외세 중화우월사상

중국에는 량젠 신드롬이 있다. 량젠은 항일전쟁 당시 대담한 기지와 전술로 정예군인 야마자키 대대를 섬멸시킨 전공을 세워 중국의 패튼으로 불리는 팔로군 소속 리운룡(李雲龍)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로서 현지에서 방영한 우리나라 연속극 대장금을 제치고 CCTV 사상최고의 인기드라마로 등극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상품은 홍색여행으로서 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국가발전 개혁위원회가 혁명성지와 민족주의 투쟁현장 백여 개소를 관광지로 만든 것이다.

마오쩌둥 전 주석의 고향인 후난성 사오산은 매일 오전 명 이상이 찾는 명소다. 이것이 바로 중화 애국주의의 열기다. 중국청소년이 열광하는 온라인게임은 공산주의청년단과 중국신문출판총서가 각각 국혼(國魂)과 온라인게임 출판사업을 추

진중이다. 이는 중국청소년에게 반(反)외세와 중화우월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이처럼 특이한 자연 생태환경에 속지(屬地), 속인(屬人), 속문화(屬文化) 유대관계 원리와 정치경제통합이 관광개발의 기본범주를 형성한다.

## 2) 고유한 생동적 역사

지역거주민이 민족지학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유한한 사회공간이 형성된다. 이는 문명 역학이나 국가 동역학과 밀착되어 인류사에 현저하고도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존재가치를 지닌 관광객체를 형성한다. 하지만 오늘날 무차별하게 감행되는 관광과 문화의 연결고리는 취약하여 거론 자체뿐만 아니라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현대산업은 특이한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되 고유한 생동적 역사를 지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이는 내부사회의 특성이며 외부문명과 접촉한 결과 생겨나는 독특한 사회의 성격이다. 그리고 비록 사소한 동기부여라고 하더라도 통합력이 작용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광의 기본범주를 설정하는 결정요인이다.<sup>8)</sup>

현대산업은 광역의 문명공간처럼 거대한 공간형태로 성립하는가 하면, 델타지역처럼 협소한 공간으로 성립되기도 한다. 중국인이 아전인수 격으로 설정한 중화세계 같은 공간이 있는가 하면 산지공간처럼 약한 공간도 있다. 생태환경, 사회제도, 문화상징, 특성체계를 파악하되 공간규모, 개방성, 폐쇄성, 정치사회 역학에서 구심력, 확산성, 자연생태, 경계, 문명 혹은 국가형성 역사를 파악하고 대역, 중간

8) 동북아시아 지역 관광의 기본 범주를 형성하는 표상 항목은 해당 지역의 특징적 상징으로서 생태 환경, 사회 제도, 문화 상징인데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 환경의 제1차 범주는 산지, 고원 지대, 화산, 평원, 하천 유역, 델타 지역, 저습지, 도서 지역, 다도해, 기후 지역, 풍토병, 야자나무, 향료, 생약, 해물, 금광 지역, 광산 지역을, 제2차 범주로는 논, 벼농사, 이동농경, 밭, 화전, 관개 시설, 토지 이용, 음식 문화, 어업, 생업, 화폐, 취락 생태, 조경, 가옥 형태, 의복, 옷감, 교역, 공항, 항만, 운하, 수로, 환경 공학, 환경 파괴를, 제3차 범주에는 농민, 상인, 해적, 이주민, 시장, 화교, 소수민족, 혼혈, 종족의 정체성, 남성과 여성, 인구 유동, 빈민가를 포함시킨다. 둘째, 사회 제도의 제1차 범주에는 인간관계, 혈통, 도시, 촌락, 권역을, 제2차 범주는 정치, 지배, 전통 법, 근대 법, 가산제, 왕권, 왕정, 대도시, 독재, 군부, 카리스마를, 제3차 범주로는 기업가, 금리, 토지 보유 제도, 경작지, 식민지, 서구 문명을, 제4차 범주에는 전통 교육, 근대 교육, 인텔리겐치아, 탈 식민지화, 발달 과정, 근대화, 민족주의, 혁명을 포함시켜 다룬다. 셋째, 문화 상징의 제1차 범주에는 크레올, 피진, 사비르, 링구아 프랑카를, 제2차 범주는 세계관, 우주관, 정령숭배, 신화, 의례, 주술, 민화, 타계 관념, 경계 관념, 금기, 역사관, 역법(曆法)과 역년(曆年), 시대 구분을, 제3범주로는 종교, 신앙생활을, 제4범주에서는 가면, 그림자 연극, 놀이, 문학, 음악, 영화, 만화, 저널리즘, 출판, 건축 양식, 스포츠를 다룬다.

역, 국소지역을 하위개념으로 상호 다차원 관련성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관광지 명칭을 고안하는 단계로서 간결성을 선호하면서 칭명한다. 그리고 자연 생태환경, 민족문화, 생활공간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를 척결하고 민족지학 세계관을 구축하면서 치밀하게 실생활 모습을 두텁게 묘사한다.

### 3) 해체에 의한 민족지학 세계관

현대산업은 포스트모더니즘과 결부되어야 한다. 세계를 해체(알랭 루, 2010: 237-276)하는 사상의 근본수정,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재확인, 권력적 사고방식의 반성, 문명의 관점을 대신하여 국소지역 관점을 사고방식의 축에 두면서 현대산업은 사상성향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관광이란 문화나 사상의 연결고리에 의존하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경제의 질서는 자본, 상품, 정보가 소수 선진국으로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1대 4의 계급사회로 분배효과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시의적절 하게 경제체제를 재편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장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정치사회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사고, 생활, 생산, 노동에서 서구의 근대화를 극단적으로 추종하면서 합리적 산업화를 핵심가치로 하여 국가자원을 집중하였지만 서구의 것과 맥락을 달리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한 채 국가주도형으로 관광행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산업이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며 해체(알랭 루, 2010: 237-276)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란 지적 토목공사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시 근대주의의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월적 지성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다(알랭 루, 2010: 237-276). 이것이 등장하기 이전 세계의 설명원리는 포괄적이거나 통일적이라는 통념에 의해 지지되고 정통성 위기의 해결이라는 주변상황의 요구와도 부합되어 사고방식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상대주의적 도전이 시작되자 지성이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현대산업의 아무리 사소한 사례일지라도 동기부여는 유의미한 것이며 이와 대립되는 큰 문제는 포괄적이고 통일되어야 한다.

그 동안 현대산업은 다양성을 띠고 유럽과 미주 모형의 구획개념에 융합된 것이어야 한다는 대의명제 하에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조라고 하더라도 서구만의 자기 소비주의에 국한된다면 진정한 사조로 인정될 수 없다. 여타사조의 발달사가 그러하였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관광이 발전하려면 비서구 요소도 가미되어야 한다.

민족지학 세계관은 인류정신이 발현된 유럽을 풍미하였던 낙관론과 더불어 권력의 사육제인 유험참극도 포함한다(Hobsbawm, 1983: 14).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국민국가, 국가상징, 역사가 비롯되었다. 유라시아대륙에서 서부유럽만이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를 발달시켰다(Jones, 1981).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문명과 자본주의는 장거리교역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의 낙관론을 유지시킨 다른 요인은 과학기술의 진보였다. 우주창조에 관한 존재론적 사고를 신에 의한 창조라는 종교관에서부터 코페르니쿠스적 방향전환을 통해 자연과학의 존재론으로 바꾼 것이 유럽이다. 과학적 사고의 합리성에 편승하고(Dobbs, 1990: 75-94) 논리분석을 신뢰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우위를 신봉하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과학지식인이라는 합리적 사고방식을 지닌 계층(Feuer, 1992)은 시·공간 인식의 양방향에 구애받지 않는 일원적 서구식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진보에 고준담론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물리적 지리학이 쇠퇴하면서 관광과 공간개념에 자의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포함시켜 아전인수격의 울타리 클러스터와 그렇지 않은 야만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상상의 지리학이 대두되었고(Said, 1978: 54) 포스트모더니즘 견지에서 지정학의 영향을 분석하였다(Heppe, 1992: 136-154). 지리학은 전쟁에 도움이 되다는 대의명제 하에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전제로 하는 전략이 20세기 전반 구미에서 유행하였다. 이는 공간인식이 추락하면서 정치, 권력, 전략과 야합한 결과로서 서구문명 지상주의의 표출이다. 이를 견제하는 포스트모더니즘도 근본은 동일하되 세계화로 다원화되었다(Nencel & Pels, 1991; Gamr, 1991). 이처럼 관광은 순수한 포스트모더니즘을 표방하면서 그 구성요소를 문화·사상적으로 제도, 어휘, 학문, 교리, 양식에 의존하여 표현하였다(Said, 1978: 2).

현대산업은 민족지학 세계관과 결부되어야 하지만 관광을 지리특성에 따라 단 순히 해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세계를 주권국가 범주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역의 공통성을 우선시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가 민족지학 세계관이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관점인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에 기초한 민족지학 세계관은 민족심리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내부형식을 무한하게 해체하면서 개성적 요소를 찾아내고 그의 변별적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해체(알랭 루, 2010: 237-276)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인간의 노동이 거주를 가능하게 만들며 존재하기 위해서 노동을 필요로 하는 토지는 그곳에 온화한 정치체제를 요구한다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체하여 거주(풍토), 주체(인간), 운용(법)에 따라 세계를 분석한다.

개성적인 기본범주를 독특한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찾아내고 전체주의로 묘사하는 세계질서의 구성개념에 통시성과 공시성을 병존시킨다. 관광대상지역의 거주민이 가지는 고유한 세계관에 비추어 파악될 수 있는 민족지학 세계관이 중요하다. 인식에서 작품(Ergon)을 형성하는 내부형식을 모색한다. 그 존재는 사실적 규범성을 지니고 사회통념으로 되면서 현실성까지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광개념은 해체되어야 한다(알랭 루, 2010: 237-276). 그래야 민족지학 세계관에 입각한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가 관광에서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 4) 공식(共食)행위

민족지학이나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의 근본을 해체하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울타리 클러스터 안에 존재하는 무리끼리 함께 집단으로 식사하는 공식행위다. 그것도 아주 즐거운 분위기가 민족지학을 이루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소수패거리를 더 끌어 모아 동지로 만든 이후 해당지역의 공동체를 확대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첨단정보기술을 보유한 사이버공간의 제1국가이자 수장으로서 지상의 제2위인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중화사상으로 무장된 중국인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우선 잘 먹고 마시는 공간의 유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는 중국처럼 요리가 공동으로 집합된 회전형이 아니고 일본의 각개전투식 개인형도 아닌 절충식이다. 차체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중국인과 한국인의 입맛에 공통된 요리를 개발하고 적어도 중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받는 식당부터라도 중국식 회전식탁을 마련하여 식사문화를 개선하지는 것이다.<sup>9)</sup> 우리나라의 미각문화와 융합한 요리를 개발하고 중국식 회전식탁에서

9) 개선하기에 장벽이 낮은 요리라면 샤오춘뽕또우후(생 순두부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파를 잘게 썰어 얹은 요리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으로 우리나라 입맛에도 잘 맞음), 찜니우로우(우리나라의 장조림을 얇게 저며 차갑게 하여 먹음), 쑤안라황파(시고 매운 생오이 절임), 탕추황파(달고 신 생오이 절임), 위상러우쓰(돼지고기를 실처럼 가늘게 썰어 죽순, 목이버섯, 잘게 썬 파, 생강 등의 야채와 고추, 식초, 소금, 간장, 설탕을 넣고 볶다가 전분과 육수로 걸쭉하게 마무리 한 요리), 위상체즈(위상 소스에 가지를 볶은 요리), 위상뚜우피옌(위상 소스에 납작하게 썬 감자를 볶은 요리), 위상뚜우푸(위상 소스에 두부를 볶은 요리), 후이꿔러우(비계가 약간 있는 돼지고기를 마늘즙, 마늘, 양파를 넣고 간장과 식초로 간을 하여 볶은 요리), 메이차이커우러우(우거지인 메이차이 위에 돼지고기 삼겹살을 얹고 간장 양념을 하여 찐 요리로서 가늘게 저며 찐 사천요리), 꾸로우러우(돼지고기에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긴 후, 소스를 묻혀 살짝 볶은 요리로 탕수육과 비슷한 맛), 테반니우러우(소고기, 양파, 파, 마늘 등을 기름, 참기름, 간장, 후추, 조미료 황주[쌀, 차조, 차수수 등 곡식으로 빻은 순도가 낮은

한담을 즐기면서 장시간 식사하는 공식문화를 조성해야 중국인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sup>10)</sup>

우리나라의 십 분 안에 끝나버리는 빨리빨리 식사문화로는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발의조차 하기가 어렵다. [크르판러마](밥 먹었냐?)하고 인사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식과 유사한 북측의 회전 테이블 식 식사문화와의 문화충격도 감쇄시켜야 한다.

#### 4. 시사점

유교주의에 입각한 중화사상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은 서구열강의 서세동점, 식민지개척, 구교전도라는 미명하에 억지로 개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인도의 향료만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서구열강은 아편으로 중국을 뒤흔들었다. 대혼란 속에서도 중국은 개인주의적 청교도정신에 입각한 서구와는 달리

---

술, 전분으로 간을 해 철판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볶은 쇠고기 요리로 뚝배기 효과가 있는 철판에 그대로 요리가 담겨 나옴), 마이짱썬(사천요리로 쇠고기를 가루로 만들어 먼저 볶은 다음 당면과 섞어 식초로 간을 하여 볶은 요리인데 잘게 다져진 쇠고기가 당면에 붙어 있는 모습이 마치 개미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인데 당면의 쫄깃하고 매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음), 꿩뽕우찌땡(외국인이 선호하는 사천요리로서 닭고기와 땅콩, 고추, 오이, 당근, 양파, 생강을 조미용 황주, 간장, 설탕, 식초, 화조유[산초나무 열매]로 독특한 향을 내어 볶은 요리인데 요리 명칭의 마지막 땡은 손톱만한 크기로 썰은 모양을 뜻함), 라쯔찌땡(고추와 닭고기를 잘게 썰어 볶은 요리), 마궈땡우푸(사천요리로 간장, 고추장, 참기름, 마늘, 파, 생강을 기름에 볶다가 각두기 모양으로 썬 두부를 넣고 전분으로 걸쭉하게 만든 요리), 手抓羊肉(양고기를 푹 삶아 소금에 찍어 먹는 요리), 羔(새끼 양고기 통바비큐), 휘궈(샤브샤브) 등이 있다.

- 10) 중국인이 즐기는 한담의 종류에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패러디가 유행이다. 이는 풍자, 변조, 풀라쥬 기법을 통해 이른바 머우레이터우(無厘頭) 코미디 정신(광똥어로 '제멋대로 한 다'라든가 '어리둥절하다'는 의미인데 일련의 상황이나 현상을 조합하든가 왜곡함으로써 웃기 든지 풍자하는 방식으로서 저우싱츠(周星馳) 영화가 대표적인 예)를 계승하는 새로운 문화로서 유행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중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천카이거를 패러디한 것(대표적인 예로는 평범한 인터넷 작가인 후거가 영화 '무극'을 패러디한 '전땡' 하나로 일어난 살인사건[어릴 적 전땡 하나를 도둑맞은 이후 악인이 되어 복수하려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내용]이 유행하였고 끝내는 양자 간에 설전과 법적 대응으로까지 연계됨)이 3십여만 개, 직접 투표로 신인 여가수를 선발하는 리얼리티 쇼인 차오지닝성의 패러디가 9십만 개, 1942년 문예 강령에 따라 노동자, 농민, 군인 중에서 혁명 영웅을 묘사한 문예 작품인 '홍색경전'(紅色經典)의 패러디 11만 개, 월드컵의 패러디 2백7십여만 개가 검색될 정도다. 이 가운데 혁신적인 패러디를 중국 평론가들은 '콜드 유머'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블랙 코미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그다지 큰 웃음을 유발하지는 못하나 곱씹을수록 깨우침과 소소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양자 간의 차이점으로 평가한다.

— 비록 한 때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사건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 십여 년의 공백기가 생기기는 하였지만 - 굳건하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인의 온갖 흥과 수모를 인내하고 급기야 세계최대 외환보유국가로 성장하여 고진감래를 구현한 기반은 단연 유교주의다.

오늘날 중국은 유교주의를 격상시켜 공자(량셴핑, 2010: 366-385)사상을 모든 영역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으로 유교주의를 폄박하였던 마오쩌둥의 초상화 정면에 텐안먼광장을 가로 질러 공자의 동상을 2010년 건립하면서 자리매김을 다시 하고 있다. 정중하게 절하는 노인의 모습을 중국인의 이미지로 부각시킴으로써 공자아카데미(량셴핑, 2010: 366-385)를 지원한다. 아직 중국어와 태극권만 가르치고 문화는 교육하지 않으며 술(術)을 가르치는(량셴핑, 2010: 366-385) 수준이지만 언젠가는 도(道)까지 교육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과거 심봉사와 심청이의 효도 이야기를 중국인 영토에 심청각을 지으면서까지 자국의 유교주의를 강화시킨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인의 유교주의는 경제발전을 위한 조직문화의 전통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조 격인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에까지 총성 없는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인의 상술한 사상적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교주의를 한층 강화시켜 방어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거대전략으로 확립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소수림왕 AD 313년 불교를 우리나라에 전파하면서 한문을 전승시킨 중국인이 간체자를 제정한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자기네 고전을 해독하지 못하여 중국인 고전 전문학자가 대거 우리나라로 역유학 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역설적으로 한문의 종주국으로 되었다. 따라서 유교주의의 공자(량셴핑, 2010: 366-385)사상과 고전해득을 위해 중국인 전문가 집단이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는 것에 제도적으로 유상지원을 해주면서 이를 거대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향교 문화시설과 유교 교육기관을 제주도의 교육개혁 선례에 따라 유교교육 행정조치로서 복원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의 환대산업은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중단 없는 전진을 한 관광입국의 근본이다. 과거 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라면 초대형호텔을 짓거나 메가리조트를 조성하고 이에 곁들여 대형골프장, 카지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시설 같은 자본과 노동이 집약적으로 결합된 인공적인 관광자원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경관의 가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하여 지방자치단체끼리 과도한 경쟁 때문에 관광종합단지를 개발하는 와중에 자연경관이 무차별하게 훼손되었다.

그런데 다행히 ‘세계7대경관’ 선정 최종후보지 28곳에 제주도가 뽑혀 2011년 11월 11일 우리나라의 관광과 국격(國格)을 동시에 상승시킬 호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 세계인이 죽기 전에 반드시 방문하고 경탄하면서 감상할 자연경관을 잘 보존함으로써 제주도는 자연,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전 세계인이 재방문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동기를 특히 중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하면서 관광을 개발하는 행정에 거대전략을 제도로서 확립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이 재방문할 것인가를 묻는 참여관찰 평가에서 큰 혼란을 빚는다. 그것은 굳이 설문조사를 하여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인의 평가가 거의 [하이싱](還行)이기 때문이다. 이는 괜찮다는 정도다. 여러 차례 채근을 해야 [뿌추어](不錯: 좋아), [땡하오](挺好: 아주 좋아), [랴오뿌치](了不起: 대단해)로 점차 표현을 격상시킨다. 좋고 나쁨, 되고 안 됨에 대한 표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첫 번째 대답은 [하이싱]이다. 일상 언어는 해당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사상과 관념을 민족지학으로 표현한다. 언어 관념에 담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사유경향을 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인은 스스로 은폐하고 엄폐하면서 자신을 절대 내보이지 않는 사유특성을 띤다. 그 대표적 표현이 [하이싱]이다. 가치판단을 유보하는 언어표현이 발달되어 있다. 대부분 엇비슷하고 특별할 것이 없다는 표현은 [차뿌뚜어](差不多)다. 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서 중국인의 회색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언어표현이다.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내뱉는 언어표현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광전략의 성패가 현장에서 바로 자체 평가될 수 있음에 유념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Santiago)라든가 스페인 남부 태양의 해안(Costa del sol)에 위치한 말라가(Málaga)나 마르베야(Marbella)처럼 천연혜택을 받은 자연풍광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가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라산의 눈(雪)을 활용한 스포츠와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다. 상기 도시들은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코발트 빛 하늘, 새하얀 눈, 흰 구름, 미적 감각이 출중한 색깔의 해안도시, 질푸른 바다, 은빛 요트 마리나로 구획되어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림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제주도의 해안도시에 그리스의 산토리니처럼 특색 있는 색깔문화로 도시행정의 제도화를 확립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셋째, 중국 돈의 주역인 상하이로 중심으로 항저우, 쑤저우, 난징의 남방 사람은 눈이 많이 쌓인 경치를 무척 동경한다.<sup>11)</sup> 제주도에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11) 쑤저우의 거부(巨富)가 소유하였던 저택의 줄정원 한가운데 위치한 큰 정자의 외곽에 무더운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안배하여 중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눈과 연관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재방문하도록 유인책을 강구한다. 여기에는 한라산의 눈을 주제로 하는 유명한 드라마를 제작하여 한류를 조성하는 한편, 익스트림 스포츠를 개발하거나 초고층 전망대를 랜드마크로 세워 층마다 바닥이 회전하는 식당을 만들어 회전테이블에서 상술한 중국요리를 먹으며 제주도의 중산간 도로에 배치된 차밭과 버섯재배를 겸하는 토속적인 게스트 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유유자적 한담을 즐기도록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면 중국인은 슬로우 라이프의 시간이 늘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관광하고 장기투숙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넷째, 바야흐로 세계는 에너지 자원전쟁에 이어 물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연합이 지명한 수자원 부족 국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도에 양질의 생수가 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요즘의 대세는 종전의 와인 소믈리에가 일하던 와인 바보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초고가 생수(한 병에 7만 원 이상 호가)를 전문적인 워터 소믈리에가 고객의 체질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상담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 결과치에 맞추어 처방하면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호화스러운 워터 바를 선호한다. 식신(食神)의 가호 하에 울타리 구성원끼리 화목하게 즐기는 식도락 공식문화에 인생의 전부를 할애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중국인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수 5천만 명 만큼이나 부유한 중국인 관광주체의 고객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제주도산 생수를 초고가 최고급 품질의 생수로 격상시켜 개발함으로써 그 생산과정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음용 후 체질개선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순수한 최고급 물과 청정한 자연 환경으로 치유하는 의료관광 참여자에게도 임상 실험하여 좋은 세평을 얻어 이를 적극 마케팅 함으로써 여유 있는 장·노년층의 중국인 관광객을 진정한 길벗인 평여우(朋友)로서 대거 제주도로 흡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풍력산업은 관련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기업과의 협력을 국영기업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행정을 지원하고 추진함으로써 세계 점유율이 32%나 되지만 현재 5MW 해상용 풍력발전기를 개발중이므로 우리나라는 2세대 이상 초월하는 초대형 7MW급 이상의 해상용 터빈을 단기간에 개발해 제주도에 대거 설치하고 차별화하면 세계시장 마케팅에 주효할 것이다. 중국은 2006

---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보석이나 다름없던 귀한 아라비아 식 유리창을 파르스름하게 조그마한 격자창으로 장식한 것은 유리를 통해 바라보는 연못의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니 그 얼마나 중국인이 동경하는 것이 설경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년부터 自主創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2010년 6월 대만과의 관세철폐,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에 서명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대만 경제와 결합하는 차이완(Chiwan)효과가 본격화(대만은 일본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방식인 황금삼각동맹을 추진중)되고 있는 바, 대만의 기술경쟁력과 중국의 원가경쟁력 결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2011년부터 신성장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계획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필두로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 바이오제약(일본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첨단약품인 유전자 치료제를 중국은 이미 생산중) 산업과 연계된 발전방안과 아울러 해당 산업추진 차 또는 중국의 성장전략이 소비위주로 변환됨에 따라 막강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하와이나 몰디브보다 제주도를 선호하여 설경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거대전략을 시급히 행정조치로서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거국적 토목사업으로서 제주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구축한다. 유사시나 국가안보 비상시를 대비하고 스페인의 알헤시라스(Algeciras)와 모로코 사이의 해저터널 계획안을 벤치마킹하여 홍콩의 부유(浮游)터널식이라든가, 거가대교로 연계된 거제도 통영간 해저침매(沈埋)터널 방식(submerged tunneling method)으로 하든가, 아니면 일본 아오모리 현의 신칸센용 해저터널이나 영국 런던과 프랑스 깔레(Calais)간을 연결하는 유로스타 해저터널처럼 KTX, KORAIL, 자동차의 상행선 전용터널, 하행선 전용터널, 비상시 급수와 전력전달 및 예비용 터널 세 개를 동시에 건설하여 기후급변에 의한 교통난이 전혀 없는 신속한 일일생활권으로 제주도를 격상시킴으로써 향후 동북아시아 관광의 명실상부한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계획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에서 민족지학을 완성하는 대역사이며 인류사에 영원히 남는 쾌거가 될 것이다.

## V. 결 론

지금까지 세계화의 어떤 점이 동북아시아지역에 환대산업의 위기를 조성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제도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중국인의 행태분석에 기초한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를 설명요인분석에 의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그 처방적 대안으로서 거대전략을 제안하여 보았다.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중국인은 문화적 친근감을 위해 심청원을 복원하거나 고려사관 기념탑을 세우고 고려 사람의 숙박 터를 재현하는 외에도 선비정신의 강직함과 절개를 기록한 사적비를 건립하는 등 시너지 항구개발에 민족정서 환기를 도모하면서 우리나라에 접근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항하여 진정한 의미의 벗이라는 개념으로 유교주의를 강화하여 역유학을 장려하고 느긋한 슬로우 라이프 일정으로 제주도의 경관과 설경을 즐기면서 유유자적 한담을 나눌 문화공간을 마련하며 호화스러운 워터 바를 제주도산 생수로 구비하여 순수한 최고급 물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치유하는 의료관광을 제주도의 관광개발 행정조치로 제도화하고 이를 거대전략으로 수립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로써 벗, 울타리, 유교, 한담, 생수, 의료관광에 대해 중국인이 가지는 다양한 관념, 행태, 가치관을 유사한 항목으로 묶어 다양한 차원에서 공통된 설명요인으로 축약하는 방법을 탐사적 요인분석을 하되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연구자가 논거로 삼는 이론적 배경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면서 요인분석을 하는 방법을 정성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울타리, 진정한 의미의 벗, 한담, 집단식사라는 중국인의 행태가 중국인의 민족정서를 환기하고 우리나라의 한(限)과 유사한 정서를 자극하면서 러브콜을 하며 물류허브를 형성하는 외에도 반(反)외세 중화우월사상을 반영한 홍색여행을 권장하고 고유한 생동적 역사를 개발하며 혁명적이고 내부를 해체하는 민족지학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 집단으로 공식행위를 일삼는 사실을 분석해 내었다. 이러한 중국인에게 제주도를 부각시켜 관광을 개발하는 거대전략으로는 제주도를 방문한 평가가 [하이싱]에서부터 단계별로 격상되도록 재방문을 유도하여야 한다. 눈을 활용한 스포츠와 해양스포츠를 개발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활성화하며 이를 집단으로 식사하면서 한담을 나누고 관망할 수 있도록 슬로우 라이프 일정을 구축한다. 디럭스 워터 바를 이용한 제주도산 생수에 의한 지병치유가 가능하도록 의료관광을 개발한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제약, 전기자동차를 제주도의 청정자연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로 구축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연결된 해저터널을 용도별로 세 가지 건설하여 유사시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에도 당황하지 않는 일일생활권 관광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김광억(1998). “현대 중국 농촌에서 공동체 이념의 기반: 종족지향성과 촌락지향성. 『한국농촌사회』, 8,130-160.
- 량셴핑(2010). 『중미전쟁』. 비아북.
- 류샤오보(2011). 『류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지식갤러리.
- 린위탕(1999). 『생활의 발견』. 문예출판사.
- 버트런드 러셀(2009). 『러셀, 북경에 가다』. 천지인.
- 알랭 루(2010). 『20세기 중국사: 제국의 몰락에서 강대국의 탄생까지』. 책과함께.
- 양동평(2008). 『중국의 두 얼굴』. 펜타그램.
- 에드워드 스타인펠드(2011).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에쎬.
- 이중텐(2009). 『중국인을 말하다』. 은행나무.
- 이중텐(2010). 『독성기』. 에버리치홀딩스.
- 조선일보(2006). 1월 7일: 이규태 칼럼.
- 중앙일보(2011). 9월 14일: 18 사회.
- 진기환(2010). 『삼국지 인물평론』. 랭귀지북스.
- Dobbs, B. J. T.(1990). “From the Secrecy of Alchemy to the Openness of Chemistry”. In Solomon’s House Revisited: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cience, Frängsmyr, T.(1990). New York: Science History Publications.
- Feuer, L. S.(1992). *The Scientific Intellectual: The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Origins of Modern Science(Transaction Version)*.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Gamr, A.(1991). *Undoing the Social: Towards a Deconstructive Sociology*,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 Hepple, L. W.(1992). “Metaphor Geometrical Discourse and the Military in South America”, In Writing Worlds, Barnes, T. J. & J. S. Duncan (eds.)(1992), London: Routledge.
- Hobsbawm, E.(1983).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 In The Invention of Tradition, Hobsbawm, E. & T. Ranger(eds.)(198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
- Jones, E. L.(1981). *The European Miracle, Environments, Economics and Geopolitics in the History of Europe and Asi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ncel, L. & P. Pels(eds.)(1991). *Constructing Knowledge: Authority and*

*Critique in Social Scienc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Said, E. W.(1978). *Orientalism: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London: Penguin Books. 2, 54.

2011년 7월 25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1년 8월 29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1년 9월 14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